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변진섭 “음악은 팬을 위해 하는 것”

3년 무명서 발라드 왕자까지

“음악 자부심, 팬 있어 행복해”



변진섭

“발라드의 왕자, ‘돌리’, ‘섭섭이’... 이런 별명만 거론해도 온 국민이 단 한 사람을 꼽을 수 있다. 바로 변진섭(48)이다.

그는 1980년대 말과 1990년대를 관통하며 가요계 트네상스 시대를 주름잡은 밀리언셀러다. 이전부터 발라드란 장르에 있었지만 ‘발라드 가수’란 용어는 변진섭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발라드 족보를 따지면 만형인 셈이다.

최근 동부이촌동 서울스튜디오에서 새 싱글을 녹음 중인 변진섭을 만났다. 이곳은 그에게 집같이 편안한 곳이다.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1집과 2집을 비롯해 12장의 앨범 중 10장가량을 이곳에서 녹음했다.

최근 tvN의 새 음악 토크쇼 ‘근대가요사 방자전’을 통해 오랜만에 방송 활동에 나선 그는 “공연을 꾸준히 했는데 TV 출연을 안 하니 사람들이 ‘요즘 뭐하니?’고 묻더라”고 웃었다.

변진섭은 경희대 농학과 재학 시절 캠퍼스 그룹인 ‘탈무드’ 5기 멤버로 1987년 MBC ‘신인가요제’에서 참여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고 3때부터 MBC 라디오 PD 겸 인기 DJ였던 고(故) 이종환이 이끄는 음악감상실 켈블루에서 통기타를 치며 노래했다.

3년간 무명으로 노래한 끝에 1988년 이곳에서 낸 1집 ‘홀로만나는 것’에 단박에 반응이 왔다. 타이틀곡 ‘홀로만나는 것’은 KBS ‘가요 토티’에서 5주 연속 1위를 했고 ‘내게 줄 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등의 수록곡들도 잇달아 사랑받았다. 2~3개월 만에 그는 스타가 됐다. 이어 1989년 발표한 2집 ‘너에게로 또다시’로 더 큰 대박이 터졌다. 이 앨범의 ‘희망사항’, ‘숙녀에게’, ‘로리’ 등이 함께 히트했다. 데뷔 당시 ‘골든디스크’ 신인상을 거머쥐었던 그는 이듬해 이 앨범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그는 가장 아끼는 곡으로 1집의 ‘너무 늦었잖아요’를 꼽았다. 이 곡은 당시 홍콩 스타들이 대세일 때 장곡영도 리메이크하고 싶

어한 노래라고 한다.

“하광훈 씨는 현실주의자인 것 같으면서도 아티스트예요. 지근식 씨는 집시 스타일로 방랑 시인 같은 근성이 있고요. 두 분 모두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는 거목들이었죠.”

지금도 변진섭 하면 떠올리는 ‘희망사항’은 양날의 검 같은 곡이다. “날 국민 가수로 만들어준 노래이자 내 음악 색깔을 바꿔버린 노래”라고 했다. 그는 “노영심 씨가 나를 리서치를 하고 100% 완성한 곡”이라며 “이후 노영심 씨가 ‘희망사항 2’를 썼는데 ‘희망사항’이 너무 히트해 내 음악 이미지가 흔들리는 것 같아 결국 노영심 씨가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로 직접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1999년 9집 ‘20B’를 발표하고 2000년 12집 연하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수중 발레) 국가대표 출신인 이주영 씨와 결혼했다. 당시 ‘발라드의 왕자’와 ‘인어 공주’의 만남으로 화제였다.

가정을 꾸린 뒤 그는 5년간 앨범 공백기를 가졌다. 2004년 낸 10집 ‘히스토리’(He-

istory)는 하광훈과 3집 이후 14년 만에 다시 만나 작업했지만 예전 같은 반응은 아니었다.

“김범수의 ‘약속’을 듣고 당시 미국에 있는 하광훈 씨에게 연락했죠. 하광훈 씨도 우리 고품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의욕을 갖고 작업했어요. 하지만 10집을 내고 홍보를 안 했죠. 둘 다 명반은 내버려두면 반응이 올 거란 믿음이 강했어요. 하하. 4년에 걸쳐 만들었으니 ‘개똥철학’이 도졌고 객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10집을 지금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오늘도 녹음하지만 목표는 옛날과 다르다”며 “히트해 1위를 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좋다고 느껴야 할 텐데’란 마음이다. 음악의 길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베스트로 작업해준 운명이다. 난 슬럼프도 없었고 나쁜 생각을 할 정도의 골곡도 없었다. ‘왕년에 내가 가수왕이었는데’가 아니라 음악 자부심이 있고 팬이 있으니 행복하다. 되레 지금 더 겸손해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연습뉴스**

EBS

Table with 3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time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Table with 3 columns showing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 schedules.

이제는 예술도 서바이벌 시대 ‘아트 스타 코리아’

스토리는 30일 밤 11시 첫 방송

예술작가들 작품 통해 실력 겨뤄

실력과 예술가들의 서바이벌 쇼가 시작된다.

케이비TV 채널 스토리온은 오는 30일 밤 11시 예술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트 스타

코리아’를 처음 방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 페인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각자 작품을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받는 형식으로 실력을 겨룬다.

‘배배밴드’ 멤버였던 이윤정의 남편 이현준, JYP엔터테인먼트 비주얼 디렉터로 활동하는 서우탁, 한국·대만 혼혈인 예술가 류니 씨 등

이 심사사를 거쳐 ‘본선’ 참가자 15명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창작 지원금 1억원과 아트 갤러리 개인전 개최 및 해외 연수 등의 기회를 준다.

배우 정려원이 메인 MC를 맡고 모델 송경아가 진행을 맡는다. **연습뉴스**

TV 하이라이트

선조들이 바라본 흑산도 흠어



한국기행(EBS·밤 9시30분)=많은 이들의 유배지였던 섬, 흑산.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하여 흑산도라 불렀다.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사람들 중 이곳 주민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수산동식물을 연구했던 이가 있었다. 손암 정약전 선생. ‘자산어보’는 그가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수백 종의 바다생물을 세밀하게 분류해 놓은 서해 남부 최초의 어류학서이다. 200여 년 전 정약전이 바라본 바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흑산 바다에는 요즘 흠어 철을 맞아 주낙 작업이 한창이다. 흠어는 바다 밑으로 던진 주낙 바늘에 걸려 올라오는데 신기한 것은 암놈이 바늘에 걸려오면 꼭 수놈이 뒤 따라 달려온다는 것이다. 암놈이 바늘을 물고 있는 틈에 수놈은 꼬미를 하기 위해 달려본다. 이를 두고 정약전은 수놈을 음탕하다고 표현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과 책임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났다 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지난해 급발진 현상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토요타 캠리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재판이 토요타 측의 합의금 지급 조건으로 갑자기 종료되었다. 이에 시사기획 창에서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급발진 현상의 원인 등을 집중 분석해보고, 토요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과장을 물고 올 수 있는지 알아봤다. 운전자가 모습까지 정확하게 찍힌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 동영상은 정말 분석해 해당 차량에서 사고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이유로 엔진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지 알아봤다.

지옥훈련 예체능 태권단 첫 대결



우리동네 예체능(KBS2·밤 11시10분)=예체능 태권단과 태극 태권단의 승부가 시작된다. 예체능 태권단에 맞서는 태극 태권단은 전직 아프리카 가봉 공주의 결혼원 출신은 물론 국가대표 꽃미남 이대훈 선수의 직속 선배까지 기본 태권도 공인 4단의 출중한 태권도 경력을 자랑해 눈길을 끈다. 이에 예체능 태권단은 이규형 대사와 정국현 사범의 밑작 훈련을 통해 한층 더 탄탄해진 기본기와 전력으로 특유의 투지와 승부욕을 불태우며 대결에 나섰다. 팀의 승리와 한 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수들의 모습과 더불어 태권도 첫 경기가 만큼 볼 만한 국제대회 톨을 따랐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 발끝에 센서를 다는 것은 물론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 호구를 착용하는 등 올림피아드 특같은 시스템을 적용하며 민반의 준비를 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3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Birth Year (e.g., 36년생, 48년생), and Fortune (행운의 숫자).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회원” ☎010-9790-8237